

奎章閣所藏 活字 字譜考

尹 炳 泰*

緒 言

I. 新訂字藪

1. 記 錄
2. 形態와 內容 編綴
3. 字譜의 成立

4. 字譜의 配列과 活字數

5. 多鑄・多收藏字

6. 避諱現象

7. 壬辰字의 鑄造事實

(以下 未完)

緒 言

지금도 奎章閣에는 朝鮮朝 後期에 鑄造되거나 雕造되었던 活字에 관한 중요한 史料인 字譜가 여러가지 남아 있다. 字譜는 이들 활자가 글자별로 얼마나 만들어졌고 간수하고 있는 수가 얼마인가를 적은 책이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1983년 8월의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는

- ① 奎章字藪
- ② 唐鐵字大小
- ③ 生生字譜 2種
- ④ 新訂字藪
- ⑤ 實錄字目錄
- ⑥ 實錄字藪
- ⑦ 衛夫人鐵木大字藪
- ⑧ 鑄字目錄
- ⑨ 韓構字藪⁽¹⁾

등과 같은 아홉가지의 字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1900년 이후에 작성된 ⑤와 ⑧을 제외한 일곱가지는 모두 1900년 이전에 작성된 기록이다.

字譜라는 말은 《生生字譜》에서 단 것으로서 活字의 譜錄을 줄인 것이다. 그 同意語로는 ‘字藪’라고 쓰인 것 같다. 앞에서 든 ①④⑥⑦⑨의 書名 끝에 字藪라는 어귀가 있어 이를 짐작케 한다.

* 忠南大學校 文科大學 圖書館學科 副教授

(1) 서울大學校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3), pp. 1207~1208, “活字”

대체로 字譜를 훑어 보면, 字譜는 어떤 활자를 얼마나 만들었나를 기록하였거나 만든 활자를 보관할 때에 어느 字彙에 어떤 글자를 얼마나 두었는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字譜를 편찬한 목적은 앞의 경우에는 글자별로 만든 숫자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것이며 뒤의 경우에는 字彙別로 대조·검색을 쉽게 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보존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또 인계 인수에 있어서의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字譜를 보면, 어떤 차례(예로 部首順)에 따라 만든 활자의 字와 그 만든/보관하고 있는 활자의 個數를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部首別(例로), 字彙別, 總鑄造·雕造한 활자의 통계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책에 따라서는 그 활자와 관련이 있는 사실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字譜에 자세하게 기록된 통계나 사실들은, 특정 활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조선조 후기의 활자인쇄를 연구한 선학들의 저서와 논문을 읽어 보아도 字譜의 사료를 인용한 예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으뜸가는 자랑의 하나인 금속활자의 발명과 활자를 계속 사용한 전통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다 하겠다. 그러나 활자인쇄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인 字譜를 활용하여야만 보다 확실한 연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개의 字譜에 대하여 ① 文獻上的 記錄, ② 形態와 內容의 編綴, ③ 字譜의 成立을 살펴본 다음, ④ 字譜의 配列과 活字數, ⑤ 多鑄雕造順과 ⑥ 避諱의 現象을 조사하고, 나아가서 관련된 활자의 ⑦ 鑄雕造에 관한 事實까지 구명하여 보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활자인쇄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字譜別로 다루어 본다.

I. 新訂字彙

1. 記 錄

문헌에서 《新訂字彙》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많이 보지 못한 탓인지는 몰라도 《西序書目》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掌故類》에서

新增字彙一本 〈考工〉內閣編印⁽²⁾

이라하여 《新訂字彙》의 ‘訂’을 ‘增’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增補文獻備考》의 《藝文考》五 〈字書類〉에서

新訂字彙一卷⁽³⁾

(2) 西序書目(寫本) I.28A. (서울大學校圖書館藏)

(3)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70. 影印本), 下, p.893下

이라 저록된 다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新訂字藪》가 우리나라 활자인쇄사의 중요한 자료로 알려진 것은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서 여러번 행한 전시회 중에서 1931년 10월에 행한 전시회의 목록인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의 ‘二. 活字・組版印刷用具類’에서

二九 新訂字藪 寫本 一册 本學藏

正祖壬辰에 加鑄하고 旁字分類하여 七橫에 넣어 둔 活字를 記載함. 大字는 舊三萬四千八百四十八字, 新六萬七千四百七十八字, 合하여 十萬二千三百二十六字로 하고, 또 小字는 舊三萬九千五百八十二字, 新八百五十九字 合하여 四萬四百四十一字 있음을 나타냄. ⁽⁴⁾(筆者譯)

이라 기록된 이후의 일로 생각한다. 이 전시목록에서 해설자는 ‘英祖壬辰’을 ‘正祖壬辰’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한편 前間恭作은 《古鮮冊譜》의 ‘字藪’라는 표목속에 포함하여

新訂字藪

이는 唐字의 字藪로서 新增字藪의 改訂 唐字藪에 앞선 編本일가.

新訂字藪 一册 (奎章閣藏書目錄)

新訂字藪一卷 (藪는 數로 틀림) (增補備考二四六卷三十四丁 字書新增)

新訂字藪 一册 寫本 (督府大正十年目錄)⁽⁵⁾

라 하였고, 또 따로 《新增字藪》에 대하여는

新增字藪 一本 內閣編本 (西序書目草本 史 掌故)

新增字藪 一本 徐命膺 (西序書目 經六書)

新增字藪 一卷 本朝內閣編次 (摺文院書目 常板 史 掌故)

最初의 책으로서 乾隆末에 編하고 活字로서 印行한 것으로 보인다.⁽⁶⁾

라고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前間은 ‘增’과 ‘訂’이 잘못 기록된 것을 각각 다른 책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또 《新增字藪》는 인쇄되었을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한편 《新訂字藪》에 대하여는 그것이 운간인서체자(芸閣印書體字)의 字譜인 《唐鐵字大小》(表紙書名은 ‘芸閣唐字藪’)의 前身으로 오인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여러번 발행한 《朝鮮圖書解題》에서는 京城帝大의 展示目錄이 ‘正祖壬辰’을 ‘英祖壬辰’이라고 한 오류를 그대로 옮기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고친 것이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서 편찬한 《韓國圖書解題》이다

(4)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 (京城: 同館, 昭和 6 (1931)), p. 6

(5) 前間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 31 (1956)), 第二册, p. 956

(6) 上掲書, p. 955

2. 形態와 內容 編綴

《新訂字藪》는 지금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管理室에서 관리하고 있는 奎章閣장서 속에 수장되어 있다. 필사본 1책으로 그 청구기호는 奎7928이다.

그 형태를 보면 線裝 方冊本으로 五針眼訂法으로 되어 있고 表紙는 누런 빛의 장지로서 장황되어 있다. 표지에는 書名이 '新訂字藪'라고 먹으로 쓰여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33.5cm 가로 22.2cm이다.

이 책의 본체는 닥종이에다 野板으로 墨印한 세로로 된 野紙에다 글씨를 먹으로 썼다. 野板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葉匡廓: 24.8×15.7cm. 有界. 10行, 行間 20字(大字 各 10字, 大字 사이에 小字 2字 雙行). 版心: 「新訂字藪」. 上 四瓣花紋魚尾(單線, 單絲). <張次>. 單線. 下白口

로 되어 있다. 版心の 版心題나 張次는 모두 墨書되어 있다.

제 1 장 앞면의 중앙에는 「春宮」이라는 양각 전서체의 방형 주인이 찍혀 있으며, 제 1 항과 제 2 항에 걸쳐 아랫쪽에서부터 「重光之章」과 「觀物軒」이라는 음각 전서체의 작은 방형 흑갈색인이 찍혀 있고, 상란에 걸쳐 「帝室圖書之章」이라는 방형 주인이 권수체를 덮으면서 찍혀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新訂字藪, 제1장 앞면

제 1 면의 권수제는 「新訂字藪」이다. 권수제 다음의 제 2 항에는 「第一櫪」이라하여 수장하고 있는 자장의 차례를 적고 있다. 다음 항 부터는 部別로 나누어지고 있다. 部의 명칭은 상란 위에 한줄 2글자로 ‘玉部·金部’ 등과 같이 기록하여 눈에 띄게하고 있다.

각 部 아래에 있는 여러 字의 차례는 획수의 순서로 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 글자의 수가 많은 순서도 아니어서 원칙이 없다. 1항에는 대체로 10자분의 글자가 있으며 각 글자 아래에는 활자의 숫자를 小字 쌍행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部別이 끝나는 곳에서는 항의 아랫쪽에 部別의 총 주자수를 ‘以上共一千七百十四字’와 같이 小字雙行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每櫪의 마지막에서, 그 장마다 수장한 활자의 총계를 적고 있다.

자장의 수는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다. 장의 끝에 있는 각장의 총계를 보면

第一櫪 以上總計 一萬四千二百九十六字
 第二櫪 以上總計 一萬三千七百十五字
 第三櫪 以上總計 一萬七千五十五字
 第四櫪 以上總計 一萬二千五百九十二字
 第五櫪 以上總計 一萬五千七百六十一字
 第六櫪 以上總計 一萬六千六百十六字
 第七櫪 以上總計 一萬二千二百九十一字

와 같다. 이러한 《新訂字藪》의 자보 본문이 제 1 장 앞면부터 시작하여 제 55 장 뒷면 제 4 항에서 끝나고 있다. 이 자보의 장별로 보관한 部의 차례를 보면 《全韻玉篇》이나 《奎章全韻》의 순서를 따른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보의 제 55 장 뒷면 제 5 항부터 활자의 총수가 집계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七櫪鑄字 / 舊三萬四千八百四十八字
 \ 新六萬七千四百七十八字
 凡十萬二千三百二十六字
 小字 / 舊三萬九千五百八十二字
 \ 新八百五十九字
 凡四萬四千四十一字

라 하여 주자의 新·舊, 大·小字의 활자의 수를 집계하여 두었다.

이 책 제 56 장에는 鑄字에 관계되는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監董
 通訓大夫行校書館校理白師敏
 司准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趙光益
 禦梅將軍行忠武衛副司勇高時俊
 宜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金禹鉉

宜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金信行

書吏 李錫禧

丁致厚

李廷亮

諸員 吳彥基

柳東蕃

庫直 李載華

刻手 南泰白

劉道昌

李萬春

田得春

銷爐匠 徐福先

金瓊環

嚴德升

이렇게 56장의 자보 본문이 끝난 다음부터 같은 한사람의 글씨체로 쓴 陽村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 春亭 卞季良의 庚子字 <鑄字跋>, 그리고 金鑣의 甲寅字 <鑄字跋>이 쓰여 있다. 이 <鑄字跋>들은 장차매김을 새로 시작하여 제 3장 뒷면 제 7항에서 끝나고 있으며, 곧 이어서 保晚齋 徐命膺의 <重鑄四書輯釋叙>가 끝장인 제 5장 뒷면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叙야말로 壬辰字의 鑄字事實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字譜의 成立

이 《新訂字藪》를 누가 언제 어디서 편찬하고 필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책 권말에 있는 徐命膺의 《重鑄四書輯釋叙》를 보면 마지막에 있는 날짜가

皇編崇禎紀元後三壬辰抄秋

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崇禎紀元後三壬辰 즉 英祖 48년 壬辰(1772)의 抄秋 즉 7월에 叙를 지었으니, 《新訂字藪》를 편찬한 상한의 날짜는 1772년 7월이라 하겠다. 保晚齋 徐命膺은 그의 文集인 《保晚齋集》에 있는 <自表>에서 ‘肅宗丙申五月二日生’⁽⁷⁾이라 한 것과 같이 肅宗 42년(1716)에 태어나, 正祖 11년(1787) 12월 20일 癸丑에 奉朝賀로 죽은 사람이다.⁽⁸⁾ 따라서 그가 생존하고 있을 때의 壬辰年은 正祖가 東宮으로 있던 해와 부합된다.

또 《新訂字藪》의 제 1장 앞면 중앙에 적혀 있는 「春宮」이라는 印記는, 정조가 王世孫 즉 東宮으로 있을 때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그가 즉위하기 전인 1772년과도 맞는다.

(7) 徐命膺, 保晚齋集 (憲宗 4(1883)跋. 木活字本), 卷第十二 1.8A~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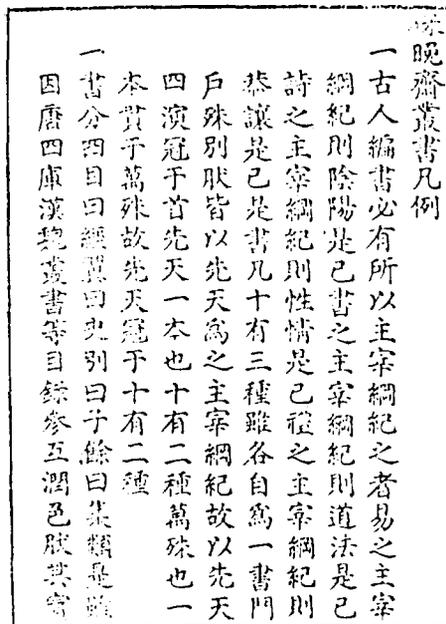
(8)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探求堂, 1968~70. 影印本), 45, p.680 下左. 正祖 11年 丁未 12月 20日 癸丑, “奉朝賀徐命膺卒”(以下「實錄」이라 略한다)

《新訂字藪》의 권말에 있는 監董 등 여러 사람의 名單 첫머리에 있는 白師敏이라는 인물은 《國朝榜目》의 기록에 따르면 본관은 水原이며 字는 士行이요 父는 尙瑩으로 英祖 9년 癸丑(1733)에 나서 安山에서 살고 있다가 英祖 45년 己丑(1769)의 上侯平復慶科庭試에 丙科 第14人으로 합격한 사람이다.⁽⁹⁾ 그가 합격한 해가 1769년으로 徐命膺이 叙를 지은 1772년 보다 3년전의 일이니, 1772년까지에는 校書館의 校理는 되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또 같은 名單에 들어 있는 인물 중의 하나인 書吏 丁致厚는 正祖元年 丁酉(1777)에 平壤에서 丁酉字를 주조할 때, 그가 또다시 동원되었던 일이 있다. 그것은 丁酉字의 字譜인 《奎章字藪》 끝에 있는 名單 속에서 ‘唱準 丁致厚’라고 나타난 것이다. 두가지 자료 모두에 丁致厚는 아무런 官銜이 없어 승진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新訂字藪》에 있는 명단의 순서에 따르면 唱準의 서열이 書吏보다 앞서고 있다. 丁酉字의 주조는 1777년의 일이므로 壬辰字의 주조 연도인 1772년 보다 5년전의 일이 된다. 1777년에 보다 높은 서열의 일을 맡았다면 그 보다 5년전에 낮은 서열의 일을 맡았다는 것은 짐작이 간다.

위에 든 네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新訂字藪》를 편찬한 시기는 英祖 48년(1772) 7월의 이후인 그 해의 연말 즈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이 《新訂字藪》의 편찬을 명한 것은 東宮으로 있던 正祖로 생각된다. 이는 壬辰字의 주조가 正祖의 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新訂字藪》에 찍혀 있는 「春宮」이라는 印記를 보



〈그림 2〉 保晚齋叢書, 凡例 제 1장 앞면

(9) 國朝榜目 (寫本) 〈英祖四十五年己丑 上侯平復慶科庭試〉

면 집작이 간다.

그리고 편찬의 일을 직접 한 사람은 徐命膺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叙를 지은 사람이 徐命膺이며, 둘째 《新訂字藪》를 글씨의 字體가 徐命膺이 쓴 著作의 稿本인 《保晚齋叢書》⁽¹⁰⁾의 〈凡例〉나 本文의 字體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다(그림 2 참조). 다만 이 둘째에 대하여는 徐命膺의 親筆이라기 보다는 《新訂字藪》끝의 명단에 있는 書吏인 李錫禧·丁致厚·李廷亮 중 한사람의 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셋째로 正祖와 徐命膺과의 밀접한 관계이다. 이는 壬辰字를 주조한 1772년의 5년 뒤인 1777년의 丁酉字 주조시에 당시의 平安道觀察使인 徐命膺에게 명하여 주조케 한 일 등을 미루어 보면 徐命膺이 《新訂字藪》를 직접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字譜의 配列과 活字數

이 字譜의 配列順序를 알기 위하여 字譜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각 穢別로 수장하고 있는 部首名, 部首 속의 각 字, 部首別로 주조·수장하고 있는 활자의 합계 등을 字譜에서 추려 본다.

第一穢	10部,	1,187字	摠計	14,296字	欠部	40字	共	384字	
玉部		180字	共	1,714字	骨部	31字	共	180字	
人部		379字	共	4,726字	力部	46字	共	542字	
土部		203字	共	2,384字	弓部	37字	共	331字	
女部		182字	共	1,634字	耒部	13字	共	94字	
卩部(右)		115字	共	1,096字	身部	13字	共	153字	
田部		66字	共	793字	艸部	6字	共	205字	
見部		24字	共	418字	第三穢	17部,	1,679字	摠計	17,055字
示部		7字	共	188字	言部	255字	共	3,433字	
耳部		23字	共	538字	木部	399字	共	2,445字	
臣部		8字	共	808字	禾部	117字	共	869字	
第二穢	17部,	1,515字	摠計	13,715字	宀部	97字	共	1,737字	
口部		354字	共	3,894字	辵部	155字	共	2,116字	
月部		223字	共	1,796字	彳部	61字	共	1,193字	
卜部		265字	共	1,757字	門部	69字	共	798字	
心部		105字	共	1,489字	疒部	117字	共	583字	
足部		122字	共	765字	木部	83字	共	915字	
方部		26字	共	258字	尸部	37字	共	361字	
彡部		48字	共	290字	夕部	51字	共	690字	
豆部		11字	共	135字	穴部	63字	共	483字	
頁部		77字	共	173字	走部	29字	共	250字	
目部		98字	共	766字	食部	95字	共	672字	

(10) 徐命膺, 保晚齋叢書, 徐浩修·徐瑩修 同校, 徐有本·徐有渠 同閱 (稿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E2-A1)

戶部	19字	共	151字	風部	31字	共	168字
瓜部	10字	共	54字	第六穢	22部, 1,567字	摠計	16,616字
片部	22字	共	284字	白部	39字	共	569字
第四穢	9部, 1,459字	摠計	12,592字	ㄴ部	37字	共	438字
水部	506字	共	4,368字	衣部	219字	共	2,083字
竹部	181字	共	1,126字	糸部	268字	共	2,285字
草部	428字	共	3,434字	酉部	84字	共	491字
立部	37字	共	536字	貝部	82字	共	893字
皿部	49字	共	600字	大部	43字	共	895字
米部	50字	共	522字	矢部	11字	共	191字
西部	58字	共	534字	丿部	88字	共	2,396字
革部	68字	共	336字	羊部	16字	共	117字
刀部	82字	共	1,136字	子部	20字	共	479字
第五穢	23部, 1,620字	摠計	15,761字	斤部	11字	共	182字
日部	86字	共	1,730字	角部	24字	共	163字
雨部	72字	共	563字	戈部	53字	共	968字
曰部	54字	共	802字	乳部	18字	共	404字
广部	100字	共	1,309字	巾部	70字	共	688字
山部	177字	共	1,281字	羽部	38字	共	338字
火部	143字	共	1,004字	隹部	25字	共	393字
鹿部	21字	共	183字	殳部	22字	共	209字
犬部	104字	共	759字	口部	52字	共	767字
豕部	46字	共	364字	鳥部	141字	共	670字
文部	84字	共	1,579字	虫部	206字	共	997字
石部	147字	共	692字	第七穢	11部, 1,004字	摠計	12,291字
牛部	41字	共	420字	金部	228字	共	1,546字
車部	110字	共	826字	才部	322字	共	2,255字
黑部	70字	共	1,126字	十部	85字	共	1,954字
馬部	116字	共	800字	之部	92字	共	3,578字
卩部(左)	103字	共	1,257字	乙部	86字	共	1,676字
彡部	13字	共	199字	寸部	13字	共	102字
舟部	47字	共	230字	手部	22字	共	221字
鬼部	13字	共	152字	齒部	23字	共	110字
鼠部	9字	共	59字	魚部	80字	共	368字
衞部	14字	共	117字	瓦部	31字	共	241字
韋部	19字	共	145字	毛部	22字	共	140字

이상에서 살펴 볼 때 《新訂字藪》의 部首의 순서는 《康熙字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部首의 순서도 아니며 總劃의 순서도 또 韻順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같은 部首 안에서 도 劃順으로 배열되어 있지도 않다. 말하자면 아무런 원칙이 없는 듯한 배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하고 있는 《明文新玉篇》⁽¹¹⁾과 맞추어 보면 部首가 서로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를 수장한 藏別로 보면 아래와 같다.

第一藏에서는

示部가 第六藏의 示部와 分離되어 있고,

臣部 속에 一·二·三·四·五·六 등의 數字가 들어 있으며,

第二藏에서는

卜部와 心部가 분리되었고,

ㄱ部가 특이하게 別設되어 있으며,

第三藏에서는

皿部 속에 血部가 합쳐져 있고,

第四藏에서는

西部 속에 皿部가 합쳐져 있다.

第五藏에서는

广部 속에 厂部가 합쳐져 있고,

豕部 속에 豸部가 합쳐져 있으며,

文部 속에 又·皮·𠂔·支部 등이 합쳐져 있고,

黑部 속에 ㄴ部가 합쳐져 있으나, 火部와는 분리되어 있다.

第六藏에서는

白部 속에 鼻部가 합쳐져 있고,

衣部 속에 衤部가 합쳐져 있으며,

丿部 속에 干·卜·冫部 등이 포함되어 있고,

乳部가 特設되어, 그 속에 龜·龍·虎·龍部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口部 속에 凵部가 합쳐져 있다.

第七藏에서는

十部 속에 母·工部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之部가 特設되어 入部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며,

乙部 속에 儿·几部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才部와 手部가 분리되어 있다.

5. 多鑄·多收藏字

이 《新訂字彙》속의 글자마다 그 아래에 小字 雙行的 숫자가 주어져 있다. 이 숫자는 그 글자가 얼마나 구조되었으며 또 수장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우선 수량이 많은 글자로부터 90字 이상의 글자만 차례로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300字	之	170	以, 也	147	大
250	而	160	天, 不	143	人, 其
174	年	150	一	137	至, 無
173	然	149	曰	136	此

(11) 金赫濟 編, 國漢 明文新玉篇 (서울: 明文堂, 1967)

135	則	116	自	102	從, 別, 又, 終
132	下	114	如, 乎	100	中, 前, 與
131	行	113	故	99	盡
130	上, 二, 三	112	言	98	今, 四, 知
127	可, 是	111	者, 夫	97	或, 雖
125	君, 有, 公	110	乃	96	千
124	名, 事	109	既	95	古, 道
123	日, 亦, 子	108	所	94	心, 官, 後, 得
122	于	107	文, 爲, 本, 國	93	使, 軍, 禮
120	王, 地, 若, 用, 左	105	何, 相, 於	92	通, 十, 先
119	矣	104	侍, 諸, 時	91	語, 法
118	臣, 月	103	更	90	見, 同, 百, 生, 世

위에서 보던 어조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열거한 글자 중에서 壬辰字의 代表字를 선정한다면 매우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6. 避諱現象

高麗에서도 그러하였지만, 朝鮮朝에서도 避諱의 현상은 엄격하였던 것 같다. 避諱의 방법으로는 缺劃 또는 缺字 등이 흔하였으나 때로는 加劃 또는 光호 [] 속에다 諱를 넣어서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避諱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역대 王들은 가능하면 자주 쓰이지 않는 글자로서 諱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다.

《新訂字藪》의 避諱現象을 조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¹²⁾

- (先系 追尊) 穆祖 安社 * 두자 모두 있으나 社에는 點(,)을 찍었음
 // 翼祖 行里 * 두자 모두 있음
 // 度祖 椿, 善來(初諱) * 세자 모두 있음
 // 桓祖 子春 * 두자 모두 있음
 1代 太祖 旦, 成桂(初諱) * 諱만 없음
 2代 定宗 暉, 芳果(初諱) * 諱만 없음
 3代 太宗 芳遠 * 두자 모두 있음
 4代 世宗 禔 * 없음
 5代 文宗 珣 * 없음
 6代 端宗 弘暉 * 두자 모두 있음
 7代 世祖 瑊 * 없음
 追尊 德宗 暉, 崇(初諱) * 諱만 없음
 8代 睿宗 昞 * 없음
 9代 成宗 藝 * 없음
 10代 燕山君 藝 * 없음

(12) 이 避諱는, 白麟,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67)의 附表에 따랐다.

- 11代 中宗 樺 * 있음
- 12代 仁宗 皓 * 없음
- 13代 明宗 頤 * 없음
- 14代 宣祖 昞, 鈞(初諱) * 諱단 없음
- 15代 光海君 璵 * 없음
- 追尊 元宗 桴 * 없음
- 16代 仁祖 儆 * 없음
- 17代 孝宗 溟 * 없음
- 18代 顯宗 㷀 * 없음
- 19代 肅宗 淸 * 있음
- 20代 景宗 昀 * 있음
- 21代 英祖 昉 * 없음
- 追尊 眞宗 緯 * 없음
- 追尊 莊祖 愼 * 없음
- 22代 正祖 祘 * 없음

위에서 보면 先系 4祖・太宗・端宗・中宗・肅宗 그리고 景宗의 諱는 모두 들어 있으며, 그 밖의 諱字는 자주 쓰이지 않는 글자여서인지 없다. 이로서 짐작하여 보면 《新訂字藪》에서는 避諱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7. 壬辰字의 鑄造事實

壬辰字는 正祖가 王世孫으로 있던 英祖 48년 壬辰(1772)에 英祖에게 청하여, 甲寅字로 인쇄한 《心經》과 《萬病回春》을 大內에서 가져와, 이를 字本으로 하여 15萬字를 주조하여 芸閣(芸閣)에 두고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여러 선학에 의하여 언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白麟은 壬辰字로 인쇄한 最初印本을 《易學啓蒙集箋》이라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책의 書跋을 소개하는 글을 《韓國史研究》지에 발표한 일이 있다.⁽¹³⁾ 그런데 이 跋文을 소개함에 있어 너무나 생략한 까닭에 더 일찍 인쇄한 初印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壬辰字를 주조한 정확한 月・日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壬辰字의 주조에 관하여는 새로 찾아낸 자료에 의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겠다.

가. 鑄造한 時期

壬辰字를 주조한 해가 英祖 48년 壬辰(1772)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학이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런데 어느 달(月)에 주조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밝힌 사람은 없었다.

壬辰字의 주조시기를 알려주는 史料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新訂字藪》의 끝에 붙은 癸未字・庚子字・甲寅字의 〈鑄字跋〉에 이어서 제 3 장 뒷면부터 제 5 장 뒷면에 걸쳐 쓰여

(13) 白麟,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韓國史研究 4, (1969. 6), pp. 133~136, “13. 壬辰字”

있는 保晚齋 徐命膺이 쓴 〈重鑄四書輯釋叙〉이다. 이 글은 사실상의 壬辰字의 鑄字跋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내용만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重鑄四書輯釋叙

(略) 四書之有小註荆自新安倪氏輯釋至 皇明推演輯釋以爲大全然後大全遂盛行於世幾乎家藏人蓄而輯釋一書(略) 學者往往不知其名何也〈臣〉嘗得

世宗朝印本輯釋而讀之其言約(略) 其義明類非大全(略) 今年夏我

聖上以芸閣所藏鑄字即

世宗朝鑄造之文物而散軼缺今不能印一卷書爲可惜也

命芸閣重加範鑄閱三月盡酌府而止焉將印一部成書以試其字體咸曰

世宗朝後始備之鑄字當印

世宗朝時尊閣之輯釋也乃就輯釋凡其約說章圖通攷通義等後人之附益者並皆刪去但取倪氏原本鑄印廣布以爲大全之醴縑(略)

王猷則我

聖上壽考作人之功未必非是書爲之助也

皇明崇禎紀元後三壬辰抄秋正憲大夫原任議政府左叅贊兼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世孫右賓客〈臣〉徐命膺拜手稽首謹叙⁽¹⁴⁾

이에 따르면 이 〈叙〉를 쓴 崇禎紀元後三壬辰 즉 英祖 48년 壬辰(1772) 여름부터 운각(芸閣) 즉 校書館에서 활자를 주조하기 시작하여 3개월만에야 重加鑄가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叙를 쓴 달이 抄秋이니 이는 바로 7월임을 밝힌 것이고, 이때 3개월만에 주조가 끝났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3개월 앞선 여름을 생각하자면 4월을 연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활자를 실지로 주성하는 일은 그 보다도 보름 이전에 시작하였던 모양이다. 《英祖實錄》의 英祖 48년 壬辰 3월 15일 庚戌의 기사를 보면 壬辰字 주조에 관한 두번째 史料인

上御集慶堂藥房入診使大提學徐命膺考應製詩被選人各賜紙華墨有差 上因命膺所奏 命自本館看檢鑄成活字事⁽¹⁵⁾

라는 글이 있다. 이 글로 보아 壬辰字의 주조를 시작한 시기는 1772년 3월 15일 이전이 될 것이며, 주조를 끝난 시기는 그 때보다 3개월 뒤이고, 徐命膺이 叙를 쓴 시기인 7월 보다 앞선 시기인 6월 15일 전후로 생각된다.

나. 鑄造한 活字數

중전에 선학들은 《正祖實錄》의 正祖元年 丁酉(1777) 8월 3일 丙申의 기사에 있는

鑄字成 世宗甲寅 命金墩等以孝順事實爲善陰隲字範銅凡二十餘萬字俗稱衛夫人字是也至 宣祖朝重

(14) 徐命膺, 保晚齋集(憲宗 4(1883)跋. 木活字本), 卷第七 1. 22B~23B에도 〈重鑄四書輯釋序〉라 하여 같은 글이 실려 있다.

(15) 實錄, 44, p. 416上

修其字 上在春邸 命宮僚校正甲寅字鑄十五萬字藏于芸閣印行經書正文啓蒙集箋是爲壬辰字 (略)⁽¹⁶⁾

라는 글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壬辰字를 15萬字 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新訂字藪》의 본문 제55장에 있는 글에 7櫛 모두에 수장하고 있는 주자의 수에, 舊字는 大字가 34,848字 小字가 39,582字 計 74,430字, 그리고 新字는 大字가 67,478字 小字가 859字, 計 68,337字이고, 新舊字 合하여 大字가 102,326字 小字가 40,441字 合計가 142,767字로 나타나 있다. 이 수량은 앞의 15萬字에 비하면 7,233字가 부족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丁酉字의 경우에는 《實錄》에서는 15萬字를 加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丁酉字의 字譜인 《奎章字藪》에서는 모두 150,170字를 수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7,233字의 부족이나 170字의 초과는 비록 수장 또는 주조과정에서의 오차라 하여도 거의 정확한 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新訂字藪》에서 舊·新으로 활자의 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舊字 74,430字를 주조하였고 이어서 新字 68,337字를 주조하였거나 아니면 《重鑄四書輯釋叙》에 ‘命芸閣重加範鑄’라 한 것과 같이 추가로 주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新·舊字 합하여 142,767字 즉 약 15萬字를 校書館인 芸閣에서 7櫛에다 나누어서 보관하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 鑄造한 사람들

壬辰字를 芸閣에서 주조한 것은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알려져 있지만 누가 주조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선학의 아무도 언급한 일이 없다. 《新訂字藪》의 본문의 끝에 있는 명단과 《英祖實錄》의 기사는 壬辰字의 주조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다.

實錄의 기사에 의하면

(略) 上因命膺所奏 命自本館看檢鑄成活字事⁽¹⁷⁾

라 하고 있어 활자 주조를 명한 것은 英祖로 이는 世孫의 右賓客이던 徐命膺의 上奏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활자 주조의 일을 看檢케 한 것도 徐命膺으로 보인다.

실지로 활자 주조를 담당할 인물들은 《新訂字藪》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가 校書館의 官員이었으니 監董의 일을 본 사람은 校理인 白師敏이었다. 그 아래에서 司准의 일을 본 사람은 趙光益·高時俊·金禹鉉·金信行이었고 書吏는 李錫禧·丁致厚·李廷亮이었으며 諸員은 吳彥基·柳東蕃, 庫直은 李載華였다. 정작 기술적인 일을 맡았던 사람은, 鑄字의 母活字를 조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刻手는 南泰白·劉道昌·李萬春·田得春이었고, 주자의 주물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銷爐匠은 徐福先·金瓚環·嚴德升이었다.

(16) 上揭書, p.684上

(17) 上揭書, 同面

라. 壬辰字의 字本

壬辰字의 字本은 선학에 의하여 《正祖實錄》에 있는 기사인

(略) 予於壬辰在東宮仰請大朝以內下甲寅字所印心經萬病回春二書爲字本鑄五萬字藏之是爲壬辰字(略)⁽¹⁸⁾

를 인용하여 영조가 大內에서 내린 《心經》과 《萬病回春》의 두가지 책만을 字本으로 하여, 壬辰字를 주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徐命膺의 문집인 《保晚齋集》에 있는 〈奎章字瑞記〉에 보면

(略) 我 聖上自在春宮慨然於此壬辰年間令賓客臣命膺稟于 大朝搜出 世宗朝已經範鎔之木本三萬餘字且 下內藏古本心經五帙然其有無補鑄十五萬字(略)⁽¹⁹⁾

라고 나와 있어 그 字本이 되는 자료는 두가지 종류가 있음이 나타난다. 하나는 ‘木本三萬餘字’라 한 木活字 3萬餘字이고 다른 한가지는 내장하고 있던 《心經》 5帙이라는 점이다. 이 상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壬辰字의 字本은

- ① 東宮의 請으로 英祖가 內下한,
- ② 甲寅字로 인쇄된 《心經》 5帙과,
- ③ 《萬病回春》라는 책에다,
- ④ 木本 3萬餘字라는 木活字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①부터 ③까지는 선학의 논저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④는 전혀 새롭게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네가지 사실에 대하여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에 대하여는 東宮이 직접 英祖에게 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자료의 출현으로 右賓客인 徐命膺을 통하여 英祖에게 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의 甲寅字란 世宗 16년 甲寅(1434)에 주조한 初鑄 甲寅字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甲寅字로 인쇄하였다는 《心經》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책으로 ‘心經’이란 대개 《心經附註》를 뜻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권수에는 程敏政이 지은 弘治 5년 壬子(1492) 즉 成宗 23년의 날자로 된 序文이 있다. 그러니 이 책이 그보다 늦은 시기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初鑄 甲寅字로 인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心經附註》의 版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中宗 18년(1523)을 전후하여 나온 판본이 가장 오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더구나 成宗~中宗間의 版本이 5帙이나 大內에 남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上揭書, p. 637

(19) 徐命膺, 前揭書, 卷之八, l. 43A

(20) 尹炳泰, “退溪와 心經附註” 韓國의 哲學 第8號, (1979.12.), pp.71~73

初鑄 甲寅字가 주조된 때부터 壬辰字가 주조된 사이에 甲寅字 또는 衛夫人字라고 불리는 활자가 주조된 것은 改鑄만 하여도 癸酉字·戊午字·戊申字 등이 있으며 補鑄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늦은 戊申字로 인쇄한 《心經附註》로는 顯宗 13년(1672) 8월과 肅宗 31년(1705) 11월 그리고 英祖 29년(1753) 4월에 內賜한 세가지 版本이 남아 있다. 《心經附註》는 모두 4卷으로 分卷되어 있으며 대체로 2책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 책을 5帙이나 大內에서 내렸다 하였으므로 4卷 2冊이 아닌 4卷本 10冊을 字本용으로 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0冊을 내어 줄 만큼의 版本이라면 앞의 세가지 內賜本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英祖 29년 印出本인 戊申字本을 字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코 初鑄 甲寅字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헌 한가지는 壬辰戰前 全州史庫의 形止案인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에 보아도 《心經附註》⁽²¹⁾가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③의 甲寅字本 《萬病回春》은 그 완전한 書名이 《增補萬病回春》으로 보인다. 이 책은 明의 龔廷賢이 편집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卷 10冊본이 있다. 甲寅字體의 활자로 인쇄하였다고 하였으니, 英祖 29년(1753) 9월에 嶺營에서 木版으로 이 책을 간행케 한 것으로 보아 그보다 앞서 주조된 戊申字로 印出한 책으로 보인다.

마. 壬辰字의 初印本

壬辰字로 인쇄한 최초의 初印本이 《易學啓蒙集箋》이라고 밝힌 것은 白麟이었다.⁽²²⁾ 그는 그 근거문헌으로서 《易學啓蒙集箋》의 書跋과 《正祖實錄》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易學啓蒙集箋》의 書跋을 보면, 그 題는 〈易學啓蒙集箋跋〉이다. 그 글의 중요한 줄거리는

易學啓蒙集箋跋

壬辰冬 玉世孫邸下將進講易學啓蒙附註以附註箋釋有要解補解(略) 時芸館之鑄字初成以初成之鑄字印新訂之啓蒙廣布方國(略) 上之四十八年陽復(略) 徐命膺拜手書

이다. 이 글에서 白麟은 跋 속의 ‘釋有要解補解’라는 글을 생략하여 버렸기 때문에 《易學啓蒙集箋》보다 앞선 壬辰字 印本을 더 찾아내지 못한 것 같다. 그 한가지 印本이 《易學啓蒙要解》이다.

이 두가지 책은 모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을 찾아보게 된 것은 두가지 모두 卷首에 〈御製易學啓蒙要解序〉와 〈易學啓蒙序〉가 있는 바, 같은 壬辰序文大字라는 大型活字로 인쇄되어 있으며 또 그 본문은 壬辰字로 인쇄되어 있고, 標題面도 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책을 비교하여 본문의 版式과 사용한 활자의 새로움은 꼭 같으나 木板으로 된 삼도

(21) 寫本, 1冊(6張). 奎章閣(奎 10004)

(22) 白麟, 前揭論文, p. 134

의 떨어져 나간 부분은 《易學啓蒙集箋》 쪽이 더한 것으로 보아 《易學啓蒙要解》 쪽이 더 일찍 인쇄된 것으로 생각한다.⁽²³⁾ 要解에는 集箋에 있는 跋도 없었고 또 아무런 印出記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른 壬辰字 印本임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든 두가지 책은 集箋의 跋에 의하여 集箋은 英祖48년 壬辰(1772) 10월 10일에 印出되었고 要解는 그 보다 직전에 印出되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일찍 壬辰字로 印出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책으로 《重鐫四書輯釋》이 더 있을 가망이 있다. 이는 《新訂字藪》나 《保晚齋集》에 있는 《重鐫四書輯釋叙》에서

(略) 命芸閣重加範鑄 (略) 將印一部成書以試其字體 (略) 世宗時尊閣之輯釋也乃就輯釋 (略) 後人之所附益者並皆刪去但取倪氏原本鐫印廣布 (略)

라 한 것과 叙의 날자가 앞의 두가지 책과 같은 英祖 48년이고 7월이므로 集箋 보다 3개월이나 앞선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남아 있는 책을 보지 못하였다.

(以下 別稿에 계속함)

(23)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pp. 102~107, “壬辰序文大字”